

ASTI MARKET INSIGHT

인슈어테크 (InsurTech)

정책 동향 및 시장 전망



데이터분석본부 수도권지원 책임연구원 **구영덕** Tel: 02-3299-6035 e-mail: ydkoo@kisti.re.kr

KEY FINDING

1. 인슈어테크(Insur Tech)란 보험(Insur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의 정보기술(IT)을 활용해 기존 보험 산업을 혁신하는 서비스를 지칭하며, 상품 개발부터 보험금 청구 및 수금, 브로커 및 에이전트 관리, AI 고객 상담, 마이크로보험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2. 인슈어테크가 보험업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 속에서 신생기업(start-up)들은 보험업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기술과 사업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소비자에 대한 종합 위험 분석을 통한 맞춤형 보험 상품 개발 및 P2P(peer-to-peer) 방식의 위험전가 모델 등 다양한 방식의 BM모델을 통해 보험 업계로 진출하고 있다.
3. 개인정보 보호 관련 데이터3법으로 2020년 8월5일부터 시행되어 개인정보 활용으로 제한을 받은 인슈어테크 업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4. 세계 시장규모는 2020년 25억 3천만 달러에서 연평균 48.8%로 성장해 2028년 609억 8천만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시장은 2020년 3,552만 달러에서 2028년 8억 5,372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5. 최근 글로벌 인슈어테크 시장은 투자비를 확장하고 있고, 벤처캐피탈은 보험업계의 디지털화를 위해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소통과 규제 보안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진화를 흡수하여 인슈어테크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 생체정보(Biometrics) 개요

인슈어테크(InsurTech)란 보험(Insurance)과 기술(Technology)

의 합성어로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의 정보기술(IT)을 활용해 기존 보험 산업을 혁신하는 서비스를 지칭한다. 금융업에도 핀테크(FinTech)¹⁾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1) 핀테크(FinTech)는 Finance(금융)와 Technology(기술)의 합성어로, 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통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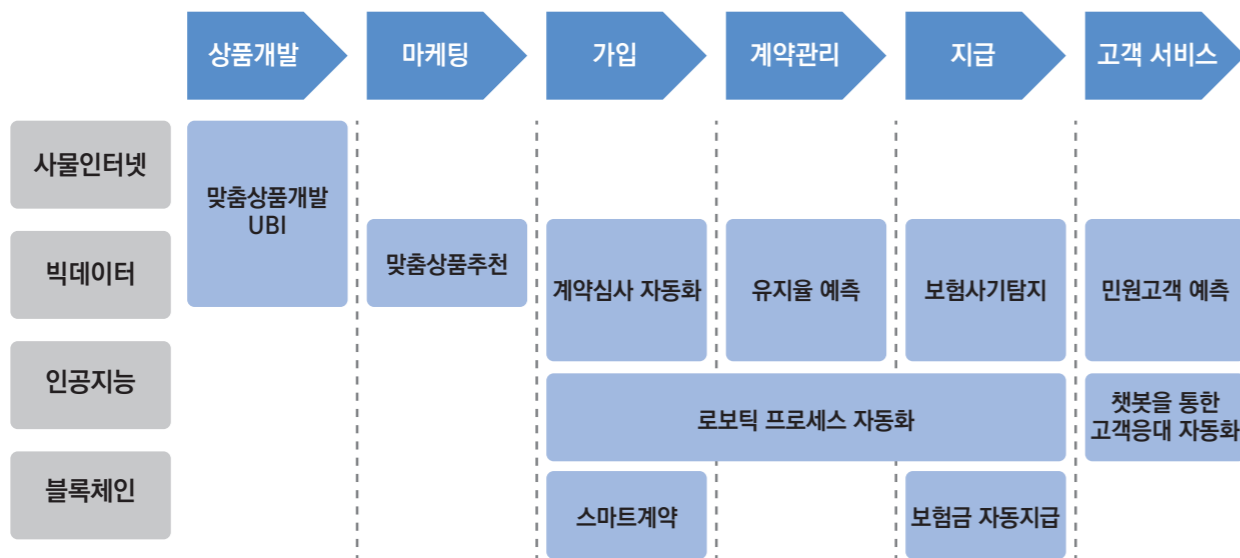
초기에 지급결제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했던 핀테크는 개인의 자산 관리, 인터넷 전문은행, 보험 등의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보험업의 혁신도 시작되고 있다.

보험업은 지금까지 주로 대면거래로 이루어졌고, 또한 가격 결정과 상품 설계 과정에서 불확정성이 높았다. 이에 타 산업에 비해 소비자와의 소통 정도가 가장 떨어진다고 평가받고 있는 보험업은 소통 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소비자와의 신뢰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험업계는 투명성과 원가절감을 목표로 하는 보험가격 비교 사이트를 개설하고, 보험증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기 위해 SW와 모바일앱 등을 개발해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고 있다.

인슈어테크 적용 기술은 보험업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바꿀 혁

신을 일으키면서 보험회사 자체의 업무 효율성 증대와 함께 소비자, 금융기관, 정부기관 등 시장 참여자들의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현재 인슈어테크와 밀접하게 관련된 기술로는 텔레메틱스, 자율주행, 웨어러블, 블록체인,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이 있다. 이 기술들은 보험업의 상품 개발부터 고객 서비스까지 전 영역에 걸쳐 다양한 요소 기술로 적용되어 보험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인슈어테크 스타트업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은 기존의 보험회사와 상생 파트너가 되기도 하고, 경쟁사가 되기도 한다. 인슈어테크는 상품 개발부터 보험금 청구 및 수급, 브로커 및 에이전트 관리, AI 고객 상담, 마이크로 보험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그림 1 인슈어테크 적용 분야



출처 : 보험회사 인슈어테크(InsureTech) 활용현황, 금융감독원, 2019.05.22

2) 인슈어테크의 정책동향

인슈어테크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규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데이터3법²⁾으로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어 개인정보 활용으로 제한을 받아온 인슈어테크 업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개정된 데이터3법에는 정보통신망법의 정비, 가명정보·익명

정보의 정의 및 활용 허용범위 설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위 격상 및 관리감독 강화, 마이데이터 사업 허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데이터3법 개정내용 중에서 '가명정보·익명정보의 활용 허용범위 설정' 및 '마이데이터 사업'이 보험업과 관련성이 높다.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 수 없는 정보'이며 익명정보는 '개인식별정보(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2)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일컫는 말로, 이 3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발생하는 중복 규제를 없애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됨.

주소)를 포함하지 않는 데이터'로 정의된다.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을 위해서는 가명정보 활용이 허용되며, 가명정보로 된 데이터를 데이터 전문기관에 전송하고 이를 법적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뢰인에게 관련 통계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개인정보·익명정보의 개정으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동일한 개인에 대한 정보 결합이 가능해지면서 보험회사들은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하거나 효율 체계를 세분화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개인이 직접 금융기관과 통신사, 병원 등에 있

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3의 업체에 전달해 새로운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데이터 이동권'의 개념이다. 기업들은 마이데이터뱅크에서 개인들의 정보를 합법적인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도입할 경우 보험회사는 다수의 보험회사들이 고객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높아져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활성화 된다. 소비자의 연령이나 소비 패턴에 맞는 보험을 선별해 추천할 수 있어 보험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확대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 데이터3법 개정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 관리·감독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 가명(假名)정보 데이터를 제품·서비스 개발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상 개인정보 관리·감독 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로 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명 정보 금융 분야 빅데이터 분석·활용 가명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이용·제공 허용

구분	내용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명정보·익명정보 정의 도입 및 동의없이 사용가능한 목적 범위 구체화 가명정보 이용 시 안전장치 및 통제 수단 마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집행 기능 강화
정보통신망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이용자의 개인정보 규제·감독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
신용정보법 (금융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 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 MyData) 도입 신용주체자의 본인 정보 통제 기능 강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도입 개인신용정보 활용·관리 실태 상시평가제도 도입

출처 : 국회 각 상임위원회

3) 인슈어테크(InsurTech)의 시장동향

인슈어테크가 보험업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신생 스타트업들은 보험업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기술과 사업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소비자에 대한 종합 위험 분석을 통한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 및 P2P(peer-to-peer) 방식의 위험전가 모델 등 다양한 방식의 비즈니스모델을 통해 보험업계로 진출하고 있다.

해외 인슈어테크의 특징 중 하나는 리스크 관리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고객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게 하고

사고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해 고객의 손해를 감소시키고,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출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아직은 건강관리 관련 서비스 수준에서만 제공되고 있다. 헬스케어 및 건강보험 관련 부분이 가장 활발하게 상품이 개발되고 있는데 규제를 완화해 앱을 통한 원격진료 혹은 분산된 의료 데이터를 통합시키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글로벌 투자 데이터 분석업체 피치북(Pitchbook)은 2021년 5월 발간한 보고서 '2021년 떠오르는 신기술 : 인슈어테크(2021 Emerging Tech: Insurtech)'에서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이제 막 시작 단계라고 진단하며, 인슈어테크 분야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향후 몇 년간 고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보험산업이 거대 보험회사의 전유물이었다면,

디지털 기술과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앞세워 인슈어테크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는 <표 1>의 스타트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미국 인슈어테크 활용 현황

활용기술	회사	내용
AI, 머신러닝	레모네이드 (Lemona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5년에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설립되었으며, 현재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인슈어테크의 선두기업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반려동물보험, 생명보험 등 다방면의 보험상품을 직접 판매 판매 에이전트 없이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해 영업을 함으로써 효율성을 증대시켜 타 보험사보다 평균 68% 저렴한 가격을 제공 시기술을 이용해 고객이 사고가 났을 때 모바일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3초만에 보험금을 지급해 보험료 처리 부문에서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며 화제
데이터 처리 기술	베스토우 (Bestow)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6년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창립된 디지털 생명보험 플랫폼 스타트업으로 100% 온라인으로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 10년, 20년 또는 30년 장기 보험 상품을 판매 생명보험 가입절차를 디지털화해 고객이 사회보장번호, 과거 병력, 라이프 스타일 등 몇 가지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바로 보험 가입 가능여부와 예상 보험료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20대~30대의 젊은 고객에게 인기
데이터 처리 기술, AI 큐레이션	메트로마일 (Metromi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1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된 자동차 보험 분야 인슈어테크 기업으로 현재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뉴저지, 오레곤, 펜실베이니아, 워싱턴 등 8개 주에서 서비스를 제공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일괄적인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존 자동차 보험과는 달리 '마일당 요금제'를 도입해 개인의 운전습관에 맞춘 보험가격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2020년 9월 미국의 완성차 생산기업 포드(Ford)와 파트너십을 체결)

출처 : 보험 산업의 변신, 美 '인슈어테크' 주목, Kotra 해외시장뉴스, 2021.06.04

이밖에도 일본의 다이이치생명명은 스마트폰 앱,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당뇨병 관련 데이터를 축적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네오피스 라이프(NeoFirst Life)는 건강검진 데이터분석을 통해 산출한 건강연령에 의해 보험료를 결정하고 있다. 메트라이프(MetLife)는 생활습관, 치매 등 개인별 맞춤형 질병예방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의 알리안츠(Allianz)는 임신부 및 태아의 영양상태, 발달 등을 모니터링하고,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건강발달 정보분석, 실시간 의료상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 최초의 온라인 전용 손해보험사 중앙보험의 경우 혈당측정 단말기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전송되는 혈당데이터를 분석해 호전 여부에 따라 갱신 보험료를 책정하

는 등 다양한 H/W, S/W를 통한 인슈어테크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해가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의 경우 글로벌 인슈어테크 시장의 발달과 더불어 보험사들의 인슈어테크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험회사도 IoT, AI, 빅데이터 등의 인슈어테크를 신상품개발, 마케팅, 위험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 등의 규제로 제한된 정보를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최근 인슈어테크 관련 스타트업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도 보험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는 등 규제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표 2 국내 인슈어테크 활용 현황

활용기술	회사	내용
IoT	A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동량 측정 및 웨어러블 디바이스앱 활용 연령별 운동량 목표치를 달성하면 통신요금 할인, 커피쿠폰, 온라인 상품권 제공 등의 혜택 부여
	흥국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바일앱 활용 일평균 걸음이 7천 보 이상이면 보험료의 7%, 1만 보 이상이면 10%를 6개월마다 환급

활용기술	회사	내용
IoT	DB손보, 삼성화재, KB손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바일 네비게이션 활용 SKT의 티맵 네비게이션을 켜고 일정거리 이상 주행 시 안전운전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일 때 보험료 5~10% 할인
	현대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텔레매틱스장치(블로링크)가 설치된 차량에 대해 보험료 7%를 할인하고 안전운전 요건 충족시 5% 추가할인
AI	삼성생명, 라이나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능화된 챗봇 활용 챗봇을 통해 계약조회, 보험계약 대출처리 및 상환, 보험금 청구신청·조회 등 고객 Q&A를 실시간으로 처리함
블록체인	교보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손보험금 지급 신청 시 보험사와 의료기관에서 본인인증을 거치지 않고, 사용자 인증을 한번에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임직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
	오렌지라이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해 모바일 보험증권 등의 진위여부 검증에 시범 적용 중

출처 : 인슈어테크(InsurTech)의 국내외 동향 및 전망에 대한 연구, 무역보험연구 제21권 제1호, 20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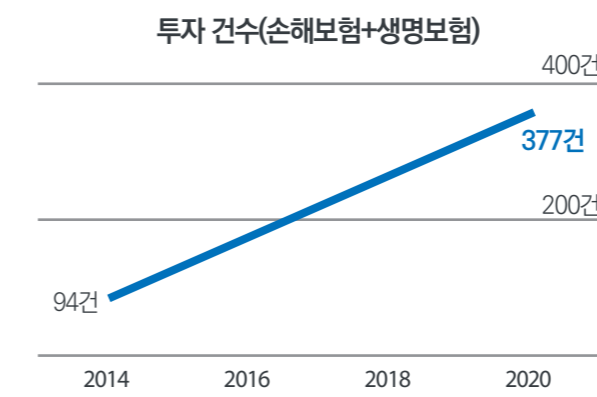
4) 인슈어테크(InsurTech)의 시장 규모 및 전망

인슈어테크는 금융에 첨단 기술을 도입한 핀테크의 일종으로 2010년쯤부터 상품 가입(계약 심사), 보험금 청구, 손해사정, 지급 등 상품 운용의 전 과정에 하나둘씩 적용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블록체인인 '스마트 콘트랙트(Smart Contract)' 기술도 접목되고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사전에 입력된 스크립트(명령어)를 블록체인이

자동으로 실행하게 하는 기술이다. 첨단 기술이 보험 산업과 접목되고 인슈어테크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점점 더 많은 스타트업과 벤처가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시장 조사업체 CB인사이트(CB Insights)에 따르면, 2020년 인슈어테크에 377건의 투자가 이뤄져 2014년 94건에 비하면 6년여 만에 4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그랜드뷰리서치(Grand View Research, Inc.)는 인슈어테크의 세계 시장규모를 2020년 25억 3천만 달러에서 2028년 609억 8천만 달러까지 연평균 48.8%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국내 인슈어테크 시장은 초기단계로 다수의 자동차 운전자가 사용하고 있는 다이렉트 보험과 스마트폰앱을 이용한 간편 보험금 청구 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다이렉트 보험상품의 보험료 산정에도 시가 적용되어 활용되고 있다. 점차 AI, 블록체인, IoT 등의 기술접목이 확대되면 개인 맞춤형 보험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국내시장은 글로벌 시장과 달리 법규 등의 제한으로 객관적 시장규모를 추정하기 힘들다. 따라서 스위스재보험회사 스위스리(Swiss Re)가 분석한 세계 보험 시장규모 6조 2,870억 달러(2020년 기준)에서 한국 시장규모 876억 달러가 차지하는 비율 약 1.4%를 인슈어테크 세계 시장규모에 적용해 국내 시장을 추정한다면, 2020년 3,552만 달러에서 2028년 8억 5,372만 달러로 연평균 48.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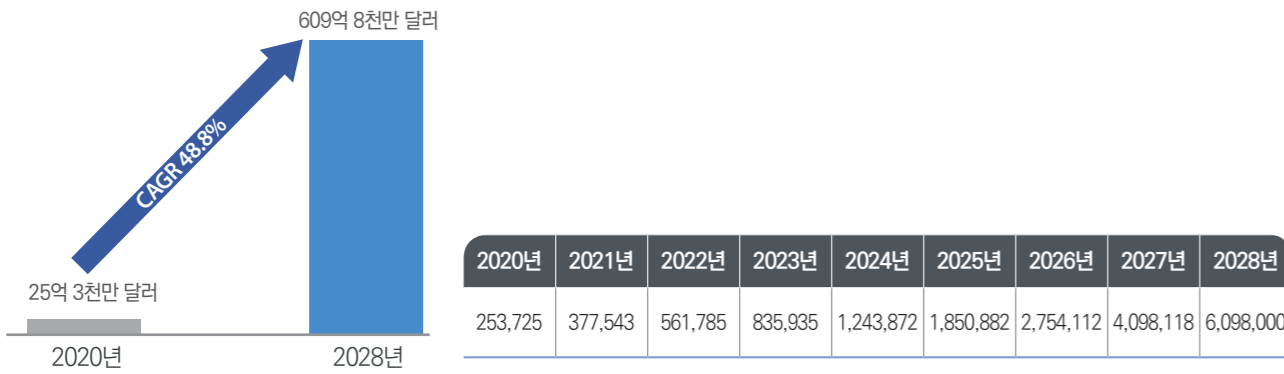
그림 3 인슈어테크 투자 건수(2014~2020년)



출처 : CB Insights

그림 4 인슈어테크의 세계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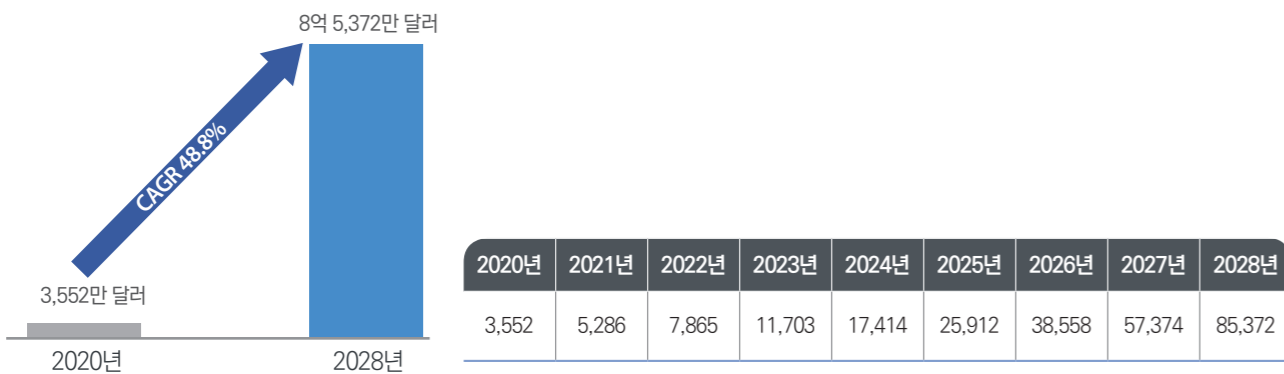
(단위: 만 달러)



자료 : Insurtech Market Size, Share & Trends Analysis Report By Type (Auto, Business, Health, Home, Specialty, Travel), By Service, By Technology, By End-use, By Region, And Segment Forecasts, 2021 - 2028, Grand view research, 2021.06

그림 5 인슈어테크 국내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만 달러)

(단위: 만 달러)



자료 : Insurtech Market Size, Share & Trends Analysis Report By Type (Auto, Business, Health, Home, Specialty, Travel), By Service, By Technology, By End-use, By Region, And Segment Forecasts, 2021 - 2028, Grand view research, 2021.06

* 국내 시장규모 산정근거 : 2020년 기준 세계보험 시장규모 6조2,870억 달러 중 국내보험 시장규모 876억 달러 비중 1.4 %

** 국내시장규모 = 인슈어테크 세계 시장 규모 및 전망*1.4 %

5) 분석자 인사이트

보험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청구 니즈 증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인슈어테크 시장의 전 세계적인 성장세 등으로 비즈니스 모델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 산업 전반에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대한 이슈가 대두되면서 보험업계도 초기단계이지만 투자 및 정책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데이터3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규를 시대 흐름에 맞게 개정하였는데, 보험 분야는 총체적으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기술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인슈어테크 기술을 활용해 혁신을 이끌어내는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글로벌 인슈어테크 시장은 투자비를 확장하고 있고, 벤처캐피탈은 보험업계 디지털화를 위해 스타트업에 투자금액을 베풀고 있다. 인슈어테크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객으로부터 개인 데이터를 수집해 보험사와 고객간 관계 개선, 보안 위험 방지, 비용 절감을 통해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 앞으로 보험업계는 온라인 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해 고객만족, 거래 절차의 합리화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며, 수많은 보험사 및 금융기관은 제품 및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인슈어테크 회사와 협력해 향상된 온라인 경험을 요구하는 고객에게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첨단기술을 적용하면서 고객 편의성은 더욱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의 자체 진단 및 병원 건강정보 데이터를 활용하던 기존 거래 시스템에서 벗어나 분산 보험 시장을 통해 블록체인에 구축된 평판 시스템을 활용해 보험회사는 고객의 보험 계리적 위험을 더욱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으며, 이는 전체 고객의 보험료 부담을 감소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현재 법률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의 규제방안으로 인해 보험가입 내역을 분석해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는 등의 인슈어테크 개발 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한계가 있어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거나 선투자를 통해 자금의 여력이 여유가 있는 기업은 상황이 조금 낫지만, 그 외 기술개발

진행 단계의 기업들은 법적 규제에 의한 사업화의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고 있고, 보험업계는 인슈어테크 기술과 더불어 새로운 플랫폼 사업 영역이 확장되면서 시장에서 많은 기회가 포착되고 있으나, 규제방안으로 인해 시장 개척이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경쟁력 및 기술진화 속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소통과 규제 보완을 통해 급속하게 변화하는 기술 진화를 흡수해 인슈어테크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1] 보험회사 인슈어테크(InsureTech) 활용현황, 금융감독원, 2019.05.22
- [2] 보험 산업의 변신, 美 '인슈어테크' 주목, Kotra 해외시장뉴스, 2021.06.04
- [3] 2021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보험연구원, 2020.12
- [4] 인슈어테크(InsurTech)의 국내외 동향 및 전망에 대한 연구, 무역보험연구 제21권 제1호, 2020.03
- [5] 이슈-하반기 이후 내년까지 세계보험시장은, 보험신보, 2021.07.26
- [6] Insurtech Market Size, Share & Trends Analysis Report By Type (Auto, Business, Health, Home, Specialty, Travel), By Service, By Technology, By End-use, By Region, And Segment Forecasts, 2021 - 2028, Grand view research, 2021.06

ASTI MARKET INSIGHT



본원 (우)34141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4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T. 042) 869-1004, 1237 F. 042) 869-1091

분원 (우)0245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6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T. 02)3299-6114 F. 02)3299-6244

